

실사회를 향한 발길을 축하하며 불성의 향기로 사회의 귀감되길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졸업을 중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들과 인사, 가족, 친지 여러분에게 동국학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의 학창시절은 시련과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이래 개혁과 변화의 물결속에서 최근 우리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많은 파란과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또 국제경쟁력을 전제조건 세계화, 국제화의 추세는 이제 온 인류의 중심적 과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물의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한미, 한일 관계도 복잡 미묘하고 대북 정책 또한 이렇다할 진전이 없습니다.

따라서 눈앞에 닥친 이십일세기의 미래를 응시하면서 이제 우리는 국가적, 민족적 좌표와 활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국가적, 사회적 격동기에 정든 교정을 떠나서 미지의 실사회로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그러나 험난한 시련의 마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사회의 어떠한 시련과 난관일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질이 여러분들에게는 잠재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모교 동국대학교는 이제 개교 90주년의 장구한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취임하신 송석구총장의 동



국발전을 위한 각별한 열정과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추진력에 힘입어 전통적인 문물 불교계의 많은 호응을 얻는 가운데 우리 동국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도 동국학술문화관의 개관 및 분당현방병원 개원 등 고무적인 일이 잇는다면, 사회적 추세인 교육개혁에도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한편, 일산의 제3 캠퍼스 건설, 수도권의 불교종교박물관 건립등의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우리 동국의 중흥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10만 동국인들은 사회의 각계 각층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에서는 제15대 총선에 많은 동국인 정치인들이 출마, 명문 사학으로서의 기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밖에 학계, 문화계뿐 아니라 법조계, 연예계에 이르기까지 동국의 함성은 요원의 불길처럼 치솟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이 선배들이 이룩한 전통과 업적을 계승하여 보람찬 미래를 열어가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본인은 여러분들의 은사,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뜻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성을 다해주시는 교수님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결코 오늘의 영광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며, 학부모님들 또한 학업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보은을 이루어야 합니다. 웃음을 스치는 인연도 소중할진대 여러분들의 오늘이 있게 되기까지 애써준 갖가지 인연들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아는 참 지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불교적 인격도야를 견학이념으로 공부한 졸업생 여러분들은 사회 어느 분야로 진출하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이 사회의 귀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는 이 기심의 공해가 뿜어대는 매연으로 어지럽기만 합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일수록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과 사회정의를 위한 불성의 향기와 여래의 참된 가르침이 단비처럼 아수문 때리고 할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일수록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과 사회정의를 위한 불성의 향기와 여래의 참된 가르침이 단비처럼 아수문 때리고 할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일수록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과 사회정의를 위한 불성의 향기와 여래의 참된 가르침이 단비처럼 아수문 때리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오복원

졸업식사

깊고 먼 배움을 향한 새출발 지속적인 자기개혁과 발전을 추구해야

오늘 이 뜻 깊은 졸업식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오복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 임원님들, 전임 총장님들, 황명수 총동창회 회장님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님들, 내외 귀빈님들, 그리고 졸업생들의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를 해주신 학부모님 여러분과 헌신적으로 가르쳐주신 교수님들께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개교 90주년을 맞는 명문사학인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인격을 도야해온 대학인으로서, 이제 민족과 국가를 위한 지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맞는 이 사회는 대학인의 품과 지성인의 생각을 마음껏 펼쳐 볼 수 있는 평탄한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냉혹한 시련과 무한경쟁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오늘의 국내외 상황은 매우 복잡미묘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개혁과 보수, 변화와 안정의 구호를 내건 각 정당이 혼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도 본질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문제를 위원한 한미관계나 북도문제등이 발원한 한일관계가 반드시 우호적인 국면이 아닌, 곧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우리는 세계화를 지향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하며 지속적인 자기개혁과 발전을 추구할 야만 지적인 혹은 지성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진하는 지성인은 끊임없는 자기성



찰과 연마를 계속할때 더욱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도 인격과 학문을 갈고 닦는 평생교육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 국제화에서 이길 수 있는 길도 수준높은 국민교육의 실천과 국민의 근면성을 바탕으로한 경쟁력의 제고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영원한 동국인으로서 모교의 발전을 지켜봐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모교인 동국대학교는 열린 교육, 참사람 만드는 대학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어느 대학보다도 철학적, 효율적인 교육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문주의를 중시하고 인간존중의 교육을 지향하는 한편, 어학교육의 강화, 컴퓨터 교육의 필수화, 복수전공제의 확대등도 그 실행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동국대학교는 금년에도 동국학술문화관의 개관과 분당현방병원의 개원을 비롯하여, 일산에 본교 제3 캠퍼스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 불교계의 숙원인 불교종교박물관의 개관도 가시화하고 있는만큼 이러한 동국발전의 실상이 하나 하나 성숙될수록 애교심에 불타는 졸업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때라고 생각합니다.

동국발전을 위한 강령군은 이제 단 하루도 멈출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 졸업을 축하하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 송석구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GU 10번 게시판이나 ID: depress메일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실천인의 목소리 필요할 때

최근 정부는 '삶의 질의 세계화'를 표방하면서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활력있는 복지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이 높은 나라가 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내가 만난 자원봉사자들은 그 필요의 절실성만큼이나 기여하는 의식과 태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지니고 있었다.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문제

를 예방치료하는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용강사회복지관'이라는 끈을 통해 연결되어진 사람들.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참여하면서 저마다의 각기 다른 역할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이 있기에 그들의 교류는 눈빛 속에 더는 어색함이 없는 듯했다.

우리나라의 각종조사에 의하면 지역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의사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참여율

은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 격차의 이유는 시간부족, 동기부족, 활동의 어려움등의 심리적 요인 또 그 가운데서도 시간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기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는 현대인에게 깊은생각을 요구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본다.

지체장애인이면서도 자원봉사자의 일원으로 자신있게, 세 계시련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지성인의 목소리라는 실천인의 목소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정현화 (인문학과대 사회복지학과)

동/문/칼/럼

흔들리는 젊음은 아름답다



내가 그의 외벽소식을 들은 것은 지난 여름이었다. 타고난 낙천성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삶을 담담하고 자신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불치의 병

을 얻어 시한부 삶을 살게됐다. 그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내 손위 오빠와 절친한 친구 사이로 우리집을 자기집처럼 드나들면서 집안식구들의 신임을 단단히 얻었던 그는 젊은 한때 필자에게 열렬한 구애를 하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정치에 뜻을 둔 피가 뜨거운 사람이었다.

40대중반에 죽음을 맞이하는 너무 어릴하고 가당찮은, 순수하며 열정적인, 강한 의지를 지닌 사람이었다. 나는 여러차례의 망설임 끝에 어렵게 그의 별칭을 찾아냈다. 그때 그는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한 순간만이라도 더 오래 살고자 갈망하는 자신의 의지의 상반없이 무참히 꿈을 짓밟은 신은 얼마나 가혹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

면, 아니 다시 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자신감이 지나쳐 오만방자했던 지난날을 청산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겠노라고. 보다 겸허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노라고...

대망의 박찬모부를 밝혀야할 신춘에 이전 불귀의 객이되어 떠나버린 이들에게는 한 사람의 이야기 기록을 적는다는 것이 얼마나 '떨떨하고' 눈치없는 일인가를 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이즈음 내게 삶의 무게를 새삼스럽게 돌아보게 하는 의미로 다가온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정직하며 겸허한가? 우리에게 부여된 이 축복받은 삶에 대하여 얼마나 진지하며 감사해하고 있는가?

신세대임을 자처하는 젊은이들이 가끔씩 선택되는 내게 자신들의 고뇌를 상담해오면서 필자를

당혹시킨다. 그들이 고뇌하는 것은 장래에 관련된 진로문제나 이성간의 사랑, 그리고 어떻게하면 이 생존경쟁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 인정받을 수 있는나라는 것이다.

예컨, 필자와 동시대인들로서 같이 걸던 우리 세대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때 우리들은 진지하게 "젊음"을 고뇌했던 것 같다.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고 지성과 감성의 빈곤이 부끄러웠다. 젊음이 누리는 더운 피, 순수하고 열정이 우리가 지난 전부터 행복이었다.

앞으로 살 날이 먼 오늘의 젊은 세대들이여, '흔들리는', '위험한', '가난한'젊음을 어떻게? 진지하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고뇌해볼 것을 권하고 싶다. 보다 겸허하게, 다시 오지않을 그대들의 귀한 젊음을, 삶을, 정직하고 활활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박남준 (국문 75출-방송작가)

목욕골

축하합니다

정석아! 복학 축하합니다. -대부

조용신(총학생회 문화국장)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집행국 일동

엘미, 선미, 영란! 생일 축하하고 올 한해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과대 아저씨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초대총장 김정규(90), 3대총장 박동규(92)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성자대 사촌촌 일동

복학을 축하하자! 토목 '93, 세종, 원평, 윤영! -15기 가장

수교과 모든 졸업 선배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교 '95학번

90동기를 졸업 축하한다. 잘 살아라. -식물자원학과 JP

신방과에 입학하는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입학 축하합니다. -신방과 및정들이

사회학과 4학년이 복학하는 삼한이, 영래, 재용이의 복학을 축하합니다. -사회4 과대표 자라

하하! 도나야 생일 축하한다. 열심히 살아라. -박

26일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누리

수고하셨습니다

새내기 맞이하느라 여념이 없으신 역사교육과 95, 94학번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역교과 선배

현역유언에게 긴 겨울방학 기따만으로도 행복했던 그 시간을 모아 봄을 맞는 동약인에게 여러분의 선물을 들려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5기 가장

열심히 합시다

산공'91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봄을 끝 새 인생 시작 화이팅! -15기 가장

미술학과 단일공간 정취 꼭 이루어 냈습니다! 지하화, 협내라. -민족동독을 아끼는 91, 93학번

동/약/광/장

축하합니다

소영이영, 주영이영, 유리형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37기

그리고...

새내기 여러분 절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아간장자 겸상학부 무역학과 집행부 일동

신입생들이! 따뜻한 가슴으로 반갑게 맞이하며. -높은 재학생

수민아! O.T준비하느라 수고했다. -후니

X영이여 부산으로 가서 사라 자라. -방동들

사랑해요! 신입생! -이기자

전자공학과 '돌발'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끈끈하게(?) 통치됩니다. 무사히... -29기 막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랑스런 길을 떠나는 기영이의 건강한 제대

동/약/광/장

축하합니다

사랑해, 자기가 최고야! 운전면허두 한 번 에 따구, 천재야 천재. -봉

한사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롭게 밝힌 정남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연

잉카의 이영누니를 축하하며... -?

주영이 오빠! 생일 축하해요. -사랑스런 과후배 은희

졸업 축하해요. 고미사 4학년선배님들 열심히 하세요. -후배

풍물때 "불휘"의 거장! 기동선배, 장우형, 형표오빠, 동훈오빠나 기동이상 졸업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에서도 거장이 되길 바랍니다. -불휘 회원 일동

O,졸업을 축하한다. 사랑해. 근대 먼저 가자. -사랑니

지리형 졸업 축하해요. 학교의 실험함을 막기위해 승락이형 남겨 놓고 가신것도 매우 고맙습니다. -동상이 고미사 '94

생물 '91 은몸으로 웃겨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 한다. -보팅

90학번 동국여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한다. 나가서도 잘들 살고 5학

온방골

축하합니다

R·A·C 졸업선배 및 동국 졸업 축하합니다. 사회에서도 실천하는 봉사인이 되시도록 노력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2401, 코리

졸업을 앞두고 있는 남욱연니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생활하세요. 졸업축하드리구요. 사랑해요. -동빈후배 선영

축하합니다

2월10일 이들이 예쁜 하얀! 생일 축하합니다. 밥 많이 먹고 이쁘게 크거라. -칼

수고하셨습니다

6대 언론협의회 집행국장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우,은섭아 군대 잘 갔다 와라. -洗絛

예비대 준비하시느라 지친 불·대집행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버거운 일들 해결해 가는 아름다운 불대인들이 되길 바래요! -해로바

몇달후면 군대가실 민영이형 힘들다고 탈영하지 마시고 밥 피박 쟁겨먹고 살 많이 쉼이요. 열심히 사시구요. -형삼이가

형진이 군대 잘 갔다오렴. -景

원영아, 형복선배 군대 잘 갔다오세요. 저도 열심히 살게요. -S·W

축하합니다

경석오빠. 졸업 진심으로 축하해요. 사랑해요. -숙이가

2월10일 이들이 예쁜 하얀! 생일 축하합니다. 밥 많이 먹고 이쁘게 크거라. -칼

수고하셨습니다

6대 언론협의회 집행국장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우,은섭아 군대 잘 갔다 와라. -洗絛

예비대 준비하시느라 지친 불·대집행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버거운 일들 해결해 가는 아름다운 불대인들이 되길 바래요! -해로바

몇달후면 군대가실 민영이형 힘들다고 탈영하지 마시고 밥 피박 쟁겨먹고 살 많이 쉼이요. 열심히 사시구요. -형삼이가

형진이 군대 잘 갔다오렴. -景

원영아, 형복선배 군대 잘 갔다오세요. 저도 열심히 살게요. -S·W

'96 민간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민족화해 정책전환 촉구·총선 대중화계기로 활용

북미관계가 연례사무소 개설을 눈앞에 두고 있다.

94년 10월 채택한 북미기본합의에 따라 정치경제를 포함한 전면적 관계개선을 추진해온 양국은 이제 경수포괄협상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연례사무소 개설을 서두르고 있다.

북미관계가 앞으로 정상화되기까지의 과정은 궁극적으로는 자본에 의한 흡수통일을 실현하고 나아가 자국주도의 동북아안보동맹에 편입시켜 경제진출에 하위 동맹자로 편입하려는 미국과, 자주통일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동북아안보대회를 추구하려는 북한간의 근본이해 차이로 인해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한반도에서 휴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새로운 군사협력관계의 구축은 최우선 과제이며, 올해 북미연인중 최대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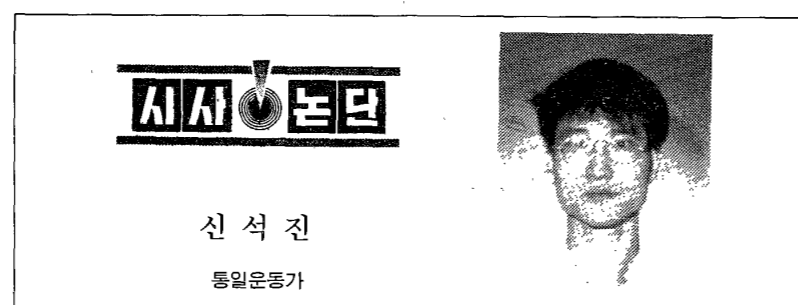
한편으로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자신의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김영삼 정부의 대북책이 수포로 돌아간 상태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흡수통일의 기초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북미관계의 진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남한과의 관계개선보다는 대미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남북관계는 당분간 표류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북미관계 개선을 우선하는 기초와 남한의 남진대결정책의 고수 등이 맞물려 남북한 당국간 자발적인 대화가 획기적으로 진전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월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연설의 내용중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여전히 민족대결적 시각으로 일관한 것을 보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 노력은 당분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 하반기부터 역대 독재정권이 상부적으로 추진한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유포시키는가하면, 간접관련 공안사건의 소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대규모 수해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에 대한 쌀지원은 동결하고, 수재지원은 적시적으로 일원화하는 직간접적인 방해는 김정일 비서의 전처와 발표된 바 있는 성해림탈출사건의 개입과 선전에서 정점을 이루며, 심지어는 북한의 "단호하고 무자비한 보복 조치"(내외통신 인용)에 대한 선전포고를 들이게 이르렀다.

집권세력이 이러한 상황을 계속 유지 또는 확산시키는데 힘을 더하고 있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구수를 통한 과거청산과 개혁에 독점을 둔우면서다. 넓은 반공이념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이윤배반적인 행위에 대한 근거와 해답이 될 것이다. 이는 추후



신석진 통일운동가

컨대 총선을 앞두고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고, 보수층의 표의탈을 막기위한 노력으로 보여진다. 이와같이 국내정치에서 좁혀진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정권안정을 위해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할 경우 일기내 남북관계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다.

남북대화협약도 북미대화를 축으로 전개되는 미국의 대북한개방전략으로 인해 당분간 한반도는 긴장이 완화될수는 있으나, 결국 '사회주의체제붕괴와 파괴'라는 북미간의 근본대립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을 해볼 때, 신뢰를 바탕으로한 남북당국간 대화의 발전을 통한 '평화 정착과 통일'의 진전만이 민족의 파멸을 막고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주평화통일세력은 올해 남한당국이 민족화해정책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민주개혁과 민족자주 실현을 위한 대중운동을 통해 통일조건을 성숙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한다.

민중 통일운동의 대중화, 일상화는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 그간 통일운동의 과정에서 대중화의 기본단위는 지역을 중심으로 삼아야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특색은 대중화활동을 통해 지역 주

민들을 통일운동의 주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총련등 주요부문의 최대결집을 통한 통일운동역량의 과시와 반통일세력과의 대규모의 싸움은 넓어진 운동공간에서 자칫 생활권을 기본으로 널리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적 영역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올해의 통일운동의 대중화의 가장 큰 발걸음은 지역에서 어떻게든 통일운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정세가 발전하고 운동역량이 성장할수록 통일의 원리와 방법론을 더욱 치밀하게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대중의 합의수준을 높여나가는 사업을 전개해야한다. 따라서 통일을 매개로 한 총체적인 한국사회의 개혁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함께 통일민족국가 수립의 이념적 기초와 건설방향 등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안으로서의 통일이념과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통일은 민족대단결의 힘에 의해 완성되며, 통일운동은 자체로 민족대단결운동이라는 대전제 아래 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기간 통일운동에서 확인되었듯이 민족대단결운동의 폭과 깊이는 남북 통일운동의 수준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대중적인 통일운동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민족대단결운동을 보다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96년 총선, 97년 대통령선거, 98년 지방선거, 2000년 총선 등 계속되는 선거일정 속에서 통일운동은 점차 중요한 정점으로 떠오를 것이 확실하므로 이에 응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거공약을 통일운동 대중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해나가야 한다.

사설

동국정신 전파하는 선봉되길

겨우내 한파를 견뎌내 나뭇가지마다 새음이 들을 기미가 보이는 듯 싶다. 필경 한 철의 마당은 항상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는 또다른 시작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듯이 대학에 첫발을 내딛던 그 시절이 학문 연마와 인격 도야의 노력으로 어우러져 이제 소정의 면학을 마무리하고 대학을 나서서 졸업생들은 또다른 시작의 출발선상에 서게 되었음을 의미있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학인으로서 쌓아왔던 지성과 열정을 이제 사회에 나가 어떻게 펼쳐보일 것인지 기대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도 앞서 한 세기를 내다보는 동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동국인의 자긍심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사회생활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 각자 갖고 있는 분야와 기량이 차별이 있을지언정 사회발전이 기여하고자 하는 용기와 열성은 어느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리하여 진리를 구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건학이념의 충실한 구현을 통해 한결같이 동국정신을 전파하는 선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전문적기능과 소양의 보수가 우선시되던 해도 그럴수록 이 사회에 요구되는 인간상은 폭넓은 교양과 다정다감한 정서를 머금은 모습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동국의 용광로에서 계발된 자야를 한껏 펼쳐보인다면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 성취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나약하고 섬세한 도구적 지식인으로만 처신하지 말고 웅혼한 기상과 미래지향적 전망을 모색하는 창조적 지식인이 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정외롭고 슬기롭게 자기 앞에 닥친 역경을 극복해나가는 역동적 지식인으로도 자리잡기를 바란다. 불의와 타협하고 타인의 고난을 외면하는 이기적 태도를 항상 반성하고 보시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삶을 배워야 하겠다.

그리하여 동국인의 대사회적 역할이 강화되고 나아가서 동국의 위상도 드높아 지리라 믿는다. 이제 새로운 동문이 되어 모교를 나서서 졸업생들은 한시라도 이러한 모교사랑의 소명의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동국은 자신의 고향 중에 고향이라는 믿음을 갖고 언제 어디서나 동국을 바라보며 동국 발전의 한 역군이 되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실천하는 동문이 되어야 하겠다.

한편 사회에서 자신의 소신과 능력을 펼치면서 부딪쳐오는 여러 난관을 해소하는데 있어 동국의 성원이 필요할 때에는 항상 모교의 모든 것이 열려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떠나는 곳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고향으로서의 동국을 다같이 일구어 나가자.

이제 졸업생이 나간 그 자리에 의욕 넘치는 신에 동국인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기대와 격려를 함께 하면서 부단한 자기 개인의 입지와 성공을 다시 동국으로 회향하는 거룩한 동국사랑을 새삼 당부하는 바이다.

동국만평

강성수



이제 버트머리 고칠 때야!

일본 망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사비이다.

독도문제가 처음으로 한-일간 쟁점이 된 것은 1893년 조선 속초시대로 양국은 각 여인의 독도근해 출어금지령을 놓고 맞서다 외교교섭 끝에 대마도주로부터 일본어인의 출어를 금지받았다. 이는 삼국사기, 세종실록에 독도를 우산국이라 표기한 것에 근거, 일본도 이를 처음부터 인정했음이다. 그후로 한-일간, 세계 여러나라의 국제법문서를 살펴보면 이는 더욱 명백히 나타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은 일본영토를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할 10개성이라 규정했으며 연합군최고사령관이 일본정부에 보낸 문서 'SCAPIN 제677호'는 일본의 통치권으로부터 제외되는 지역을 울릉도·독도·제주도등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상의 논리는 교유의 영토라는 주장과 선정설의 두 가지나 위 내용의 합법성을 따진다 면 근거가 없으며 일본 제국주의

일본, 독도 영유권 망언 재발

침략적 발상 강력대처·장기적 전략구상해야

아래 일시 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을 내세운다면 일본은 국제적 못을 거머쥐고 있을 것이다. 한국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른바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발언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충분한 반박을 예상하고도 하시오 토코리야와 이케다의상의 망언에 이어 외교재해를 통한 독도영유권 주장을 제기한 것은 이 사안을 국제적 현안으로 부각시켜 국제사회의 지지를 넓혀나간다는 전략이며 또한 미온적이면 일본정부의 태도가 급격히 변한 것은 우의성향에 강한 하시오토코리야의 출범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한편 일본의 위와같은 행위에 맞서 전구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독도망언 규탄대회 및 항의 성명이

확산되고 있으며 규탄대회중 이케다의상 허수아비 화형식을 거행하는 등 과감한 한국의 국민성을 보이고 있고 정부역시 일본 선박의 독도침범시 군사력 동원과 다문달 초방곡에서 열릴 아시아·유림정상회의 참석 때 가지기로 한 한-일정상회담 취소를 검토하는 강경대응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일 일본정부가 2백여척의 경계수역에 독도를 포함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함으로써 한국정부는 중형적 EEZ를 선포하는 등 대단히 대응책을 논의중이다.

이번 문제를 심화되어가는 일본 망언에 대해 백병훈(법학)교수는 "일본의 EEZ선포는 서한으로서는 중국의 불법 관해어업을 차단하고 남해안으로는 제주도근해 어장을

확보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일대근해 어장의 손실로 급격히 어획량의 감소는 초래하는 단점을 가진다"며 "독도영유권에 대한 협상을 가차 없는 것으로 1905년 한일합방을 시작으로 한 침략과정에서 일본영역에 독도를 편입한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부당하다. 또한 이는 제국주의적 침략적 발상이며 분명한 주권침해행위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창종(일어)교수는 "일본망언에 대한 이해는 전국민적 기본방침과 다를 바가 없으며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략에 휘말려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국제법은 근대이후 제국주의 열강들의 척도로 쓰였으나 그 이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땅이었음이 분명하고 서구 이데올로기에 맞

추어진 국제법상의 세계질서화 속에서 독도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주장했다.

"변화된 국제정세에 일본의 국력신장을 반영·장비함으로써 안보능력을 아태지역 전체로 확대한다"는 오는 4월에 발표될 '미·일 신안보공조선언'의 주골자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정부의 대내외적인 외교활동에 일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동시에 막대한 결핍점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해서는 안되며 또한 독도망언으로 가깝게는 4·11총선 멀리는 한국의 안정적 질서구축에 위협이 가해질지도 모른다.

이제는 한국의 발전적 미래상을 위해 무조건적인 일본문화의 유입을 자제해야 할 때이며 논리적인 비판의식으로 일본을 주시해야 함은 물론이고 비단 독도 영유권이나 아니라 일본과의 모든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장기적인 전략구상에 노력해야 한다.

(송성영기자)

파고다외국어학원

人材가人材를 만드나.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신 것이 파고다의 특징입니다. 27년동안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의 외길만을 걸어온 저희 PAGODA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어를 가장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인을 위해 고안된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합니다. 이 기구의 끝 남극점과 세계 최북점 에베레스트에 우리 태국기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울려 놓았던 파고다의 'CANDO' 정신은 귀하는 반드시 외국어 정상에 오르도록 힘써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어
기초영어회화
SIDE BY SIDE-FIFTY-FIFTY
A CONVERSATION-LADO-COMMUNICATE
영어, 청취, 어휘/유학, 진학, 취업
TOEFL (L.C)/TOEIC (L.C)/GRAMMAR/Vocabulary
READING/Writing/GRE/GMAT/AFKN
기초영문법·독해·청해·정문·발음교정
미국 WISCONSIN 대학반
한국 PAGODA-미국 위스콘신 WESLI
2~4개월(1월 5시간교육) · 2~4개월(1월 4시간교육)
교육중 입학생이치원 교육중 미국대학원(원)입학

최신영어특강 프로그램
미국인 영어회화
SLE COURSE(12명정원)
1월 1시간 1년과정/교수진일 미국인
INTENSIVE S.L.E. COURSE
1월 2시간 주 5회/2년 12명 소수정예
과학적교수법/최신교재 전일미국인
INTENSIVE ENGLISH COURSE
미국인 교수(박·라사)에 의해 1월 5시간 집중영어 교육
영어의 종합적(회화·문법·독해·작문)능력양성 사설인성
미국대학 공인 프로그램(주 5회 12명 정원)

일본어
기초 일본어 3개월 완성
동경 일본어 독해/일본어 문법
스크린 입회회화 및 청취
일본인의 생활언어를 스크린을 통해 학습
일본인 회화(초급 I·II·III)
NHK 일본어
위성방송을 통한 본격적 일본어청취
*교수 진원 일본 명문대학 석·박사출신

독어·불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
독어강좌
프랑스인 불어강좌
중국어 중국어강좌
스페인어강좌
러시아 인 강좌 및 모스크바대
1월 3시간/주 5일, 러시아어 교수
4개월 교육후 모스크바대 입학



세계 4번째로 남극점 도원탐험에 성공한 한국 남극탐험대 사진 중앙이 고인경 탐험대장(본학위원장), 홍성덕 대원(본학원장)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
PAGODA



중문 274-4000
중문 파고다학원 앞 빌딩
입구정 3442-4000
입구정역 3번 출구 동구대교길

신촌 706-4002
이대 전철역 7번 출구 5m
강남 501-4002
강남 전철역 7번 출구 서터빌딩

이어갈 영광의 새 얼굴들



▲유양석=한국의 도시화 과정에 있어서 인구집중 현상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중추심을 중심으로-
▲정재진=군 기능인력양성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중심으로-
▲김성원=한국 CATV광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강호=중국사회의 개방과 인본정책의 변화
▲신성준=북-미 관계개선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수철=신국채질서하에서 남북통일 실현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임윤순=미국의 무기판매정책에 관한 연구-한국의 대응방안 중심으로-
▲조남진=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한국 군사전략의 발전방안
▲우상준=한국 해군력 발전에 관한 연구
▲명호현=북한의 대미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송영진=군사기술 제고에 관한 연구
▲이항구=국방 의사조달 정책과 군 무역대리점 군용개선에 관한 연구
▲정택조=한국 방위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우=한국 방위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전자통신산업을 중심으로-
▲김기수=한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군비 통제, 핵 및 교류를 중심으로-
▲김기태=주체사상의 기능에 대한 비

판적 연구
▲김종대=북한 경제정책의 개혁과 개방가능성에 관한 연구
▲윤인희=정소년비행 방지를 위한 대중매체의 개선 및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이강=한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준=한국 보호관찰제도의 운영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창수=경찰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경비 역할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신승균=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제도의 실태와 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남상우=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희=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도시지역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모득희=사회복지 자원봉사자의 봉사 활동 중단요인에 관한 연구
▲홍길대=군인재해보상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경영대학원

▲최수환=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상호신용금고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신영호=우리나라 산업피해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황규태=한국 무역사상의 EDI 도입 효과에 관한 연구
▲신종학=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송행용=군수지원체계 통합정보화에 관한 연구-LAMIS와 CALS의 비교-적용을 중심으로-
▲김주동=맥주시장 세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정택=백화점 점포선택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신민철=학습자의 소비자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경인지역의 대학 재수생 및 재수생을 중심으로-
▲김정도=한국 주택금융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배윤호=과세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한원식=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서병기=우리나라 결원금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권태순=특별상각과 준비금을 이용한 법인세 유연화 연구
▲신원재=우리나라 이전과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구본상=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민은=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이용한 군 급여처리시스템 혁신에 관한 연구
▲신상범=시스템 관리자 측면에서 분

바이러스 예방과 대응책에 관한 연구-군내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윤성의=섬유산업의 EDI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유통구조를 중심으로-
▲이호은=중소건설업체에서 현장관리와 정보체계 구현에 관한 연구
▲최창룡=정보기술을 적용한 국방 자료기획 산출물 통합에 관한 연구
▲심인태=군수관리에서 탄약관리정보체계의 효과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찬진=군로 파견제도와 파견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관한 연구-SA 및 D사의 생산직 및 단순노무 파견근로자를 중심으로-
▲이유주=주책선도도에 대한 주책건설업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장종배=일조권 파해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임종석=우리나라 건설업의 경영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대학원

▲김희영=고등학교 학급담임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분석
▲한상규=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탐색 연구
▲이정희=Holland이론에 의한 우리나라 인문계 고등학생의 성격유형과 진로선택경향분석
▲황윤복=체계적 집단지도지도가 고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전현숙=진로교육프로그램의 집단적 적용이 초등학생의 진로인식과 자아개념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
▲최영재=초등교육 6학년 학생의 진로인식 비교
▲박미영=시조 창작 결과의 의미 기능 연구
▲김인호=최인훈 '화두'에 대한 해석론적 읽기-짜고 데리다의 해체이론을 중심으로-
▲이재민=김남천 단편소설 연구-소년 주인공을 중심으로-
▲김동미=사실시조에 나타난 현실인식의 표출양상연구
▲박훈순=판소리와 탈춤의 문학교육적 분석-문학교과서에 게재된 작품을 중심으로-
▲김규경=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띄어쓰기 실태분석
▲어형관=이옥 시의 변모구상 연구
▲박주성=서울시 환경문제에 대한 기능 지역별 인식도와 환경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고등학생의 인식도 분석을 중심으로-
▲김정미=관계 유형원의 경제사상 연구
▲한정석=수학교육에 있어서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학습지도에 관한 연구
▲권희정=상업고교 수학교육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진용=수학 학습에서 문제해결능력을 통한 이해력 향상 지도에 관한 연구
▲노승구=수학교과서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로-
▲김영옥=방송통신고교 수학 학습에 관한 연구-기초 학력과 수학 학습 습관을 중심으로-
▲연민이=플라톤의 교육사상-국가론을 중심으로-
▲이정화=한국 채색화에 나타난 색채의미에 관한 연구
▲김진식=몬드리안(MONDRIAN)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연구-신조형주의, 데스틸(destil)
▲김홍빈=코브라 그룹의 특성 연구
▲허정림=지오르조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의 형이상학적 회화에 관한 연구-초기작품에 반영된 형이상학적 작품을 중심으로-
▲김인섭=미술교육의 성장과정에 관한 연구-아동미술을 중심으로-
▲박동진=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현대 인간의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본인의 회화작품을 중심으로-
▲이달훈=Picasso의 Guernica 작품세계 연구
▲허우석=최자의 문학과-보한집을 중심으로-
▲양해준=불우한 정극인의 시문학
▲이필수=고봉 기대승의 시세계
▲송도석=상촌 신희의 시세계
▲박정수=운동 자기효능감과 운동참가 시점이 정서 변화에 미치는 효과
▲지선구=정소년의 비행 실태 및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유영범=William Wordsworth의 자연관 연구
▲김도겸=A Study of Hemingway's Heroes-From Nihilism to Stoicism-
▲김종남=국민학생의 영어학습에 있어서 정의적 특성 변화
▲이성철=WB.YEATS시에 나타난 이원론 연구
▲유영범=William Wordsworth의 자연관 연구
▲김도겸=A Study of Hemingway's Heroes-From Nihilism to Stoicism-
▲김종남=국민학생의 영어학습에 있어서 정의적 특성 변화
▲이성철=WB.YEATS시에 나타난 이원론 연구
▲유영범=William Wordsworth의 자연관 연구

산업기술대학원

▲최근수=플러터용 2차원 구동장치의 특성개선에 관한 실험적 연구
▲홍승주=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홍철기=과목초점합공 공구를 이용한 난삭제의 선삭기공에서 절삭력과 표면거칠기에 관한 연구
▲이종철=고속물류 미분말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수밀성에 관한 연구
▲송창환=콘크리트 보차도 경계블럭의 동결융해 저항성과 손상실태
▲박혁=자연공원의 관리개선방안 연구
▲김재선=건축물의 방화계획에 관한 연구
▲추광호=저온저장동 동물의 부위별 지방질 함량의 변화

정보산업대학원

▲정경=행정 전자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안재화=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추정

에 관한 경제성 연구
▲김종남=분산환경에서 3층(Threec-tier)구조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의 효과에 관한 연구-발견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주진용=인하루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시스템 통합(SI)정보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SI업자를 중심으로-
▲신동근=코블 프로그램의 모듈 정보 생성
▲안재복=분산처리 환경에서 전산망장에 검출 기법에 관한 연구
▲이창호=수송 이동관리 시스템의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이상익=Fuzzy이론을 적용한 한국어 연속음성 인식의 기초연구
▲박현주=케이블TV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지역체질의 발전을 중심으로-
▲김덕만=광고 전문인 양성 및 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유영주=서점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중소 서점주의 의견 조사를 중심으로-
▲이소영=출판사 임시면접직의 인력활용 연구
▲강성갑=경제단체 기관지 편집인력에 관한 연구
▲전용=금융전산망의 통신회선 장애 대책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대학원

▲서문환=도·농 통합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김일태=사립학교 중등교육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포항지역을 중심으로-
▲이재호=현대 근대조각에 있어서의 리듬성 특성에 관한 연구-하급제도의 바람직한 리듬성 확립을 위한 방안-
▲최승근=군중활동이 장애인들의 정신전력에 미치는 영향
▲이희일=자동차교통사고의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경주·포항지역의 자동차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손영환=중앙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대학원

▲서문환=도·농 통합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김일태=사립학교 중등교육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포항지역을 중심으로-
▲이재호=현대 근대조각에 있어서의 리듬성 특성에 관한 연구-하급제도의 바람직한 리듬성 확립을 위한 방안-
▲최승근=군중활동이 장애인들의 정신전력에 미치는 영향
▲이희일=자동차교통사고의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경주·포항지역의 자동차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손영환=중앙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원

1996학년도 전자계산 2년과정 신입생 모집

1. 모집인원: 1200명(주·야)
2.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3.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4. 전형방법 및 일시
5. 취업 및 진로
6. 기타

1996학년도 전산/정보교육과정(17)모집

1. 모집인원: 주간54명, 야간108명
2. 모집구분 및 교육기간
3. 모집대상
4.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5.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6. 교육과정 특징

공고 휴학원 추가접수

'96학년도 제1학기 일반휴학원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접수함.

1. 추가접수일자: '96.3.4(월)~3.8(금)
2. 신청자격: '95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3. 신청대상자
가. 가정형편, 질병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나. 수업일수의 2/3일자('96.5.17)이전에 군입대에정 학생
4. 신청장소: 교무처 학적과
5. 신청서류: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소정양식)
6.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원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일반휴학기간 만료후 복학하지 않은 자는 휴학기간만료 제 적용됨.

교무처장

납입금 수납안내

'96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학생 납입금을 다음과 같이 수납합니다.

다 음

1. 납부기간: 1996년 2월 22일(목)~2월 29(목)
2. 납부처

캠퍼스	납부처	대상학생
서울 및 경주캠퍼스	조흥은행 및 국민은행 전국지점	전산처리된 고지서를 소지한 학생 (전산처리된 장학생 및 복학생 포함)
서울 캠퍼스	조흥은행 동국대출장소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1)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소지한 학생 (등록금고지서와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함께 납부처에 제출하여 차액만 납부)
경주 캠퍼스	조흥은행 경주 동국대출장소	(2) 재발행고지서

3. 기타
1) 등록금 고지서는 분실, 오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납부처에 납부하지 않을시 무효로 학적이 상실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 및 경주캠퍼스 경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

퇴임교수인터뷰

◇강단을 떠나는 원로교수들에게 듣는다

“나의 삶·나의 학문·나의 동국은 하나”

“변하나,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지”

반가사유상, 그 영원한 미소



◇김용정(철학)교수

질문에 그는 사뭇 진지했다.

“지금의 학생들을 보면 전과는 다르다... 변하지 않게 있다던 예나 지금이나 고결한 교수들이 있다... 그중의 한분이 26년간 동학을 지켜온 김용정(철학)교수이다.”

동학은 변했다. 새 건물, 새로운 기자재... 변하지 않게 있다던 예나 지금이나 고결한 교수들이 있다. 그중의 한분이 26년간 동학을 지켜온 김용정(철학)교수이다.

연구실문을 열었을 때 김교수는 창밖 눈부신 햇살을 통해 미세 미소를 짓고 있었다. 불교발원전회회장, 주역학회, 한국철학회장을 두루 역임한 근엄한 학자이기 보다는 정겨운 스승의 모습이었다.

반지를 벗어내려 묻는 질문에 한참 대답이 없었다. 26년의 세월, 그 많은 소감을 한마디로 묻는게 답할만 하다. 만감이 교차하는 듯 지극히 눈을 감고 있어 말문을 들릴 수 밖에 없었다.

1930년생, 유가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일흔 할아버지 밑에 공부한 것이 계기가 되었을까? 동양철학과 현대물리학과 만나는 과학철학이 그의 전공이다.

요즘 학생들에 대한 시각을 묻는

그러나 모두가 못마땅한 것만은 아니라고 힘주어 말한다. 학생들중에는 아직도 순수학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다.

“주위에선 멀쩡해졌다고 놀림을 받았지. 그러나 이 어리석은 학문, 이 순수가 사실은 가장 큰 가치란 걸 그들은 알고 있지. 변하나, 중요한 것은 변할 수 없지. 그들이 애를 쓰는 걸 보면 김용정 때”

1970년 김교수가 부임한 이후, 기획조정실장, 문과대학장, 부총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학교에 이바지한 공은 크다. 특히 의대, 예대 건립시 의욕에 찬 행보를 보여 주었다.

퇴임후는 고전음악이나 들겠다는 것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듯하다. 과학사상권집인인 한국철학회 고문으로서의 자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가 끝날 때 문득 뒤편에 ‘반가사유상’이 보였다. 사유상과 함께 교수는 웃고 있었다.

(부)

교육과 연구의 외길 인생

“새로운 삶 가꾸며 여생을 꾸릴터”



◇이준계(가정교육)교수

“어머니갈기도 하고... 참 순수하신 분이세요”

이준계(가정교육)교수가 아직 연구실에 도착하기전 이번호 졸업한다는 가정교육과 한 학생의 이야기이다.

이제는 집을 거의 정리해 조금은 황량한 느낌을 주는 연구실. 생각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수습하지만 단정함 차림으로 나타난 이교수는 짧게 퇴임소감부터 밝힌다.

“인생에 있어서 매를 저를 시키라고 생각해, 앞으로 또 시작될 새로운 삶을 열위해 가야겠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는 소녀처럼 들뜬 맘이 살짝 보인다.

지난 75년 본교에 첫발을 들인 이후 학내에서는 교육대학원 학과장을 지냈을 뿐 아니라 학외에서도 대한가정학회 부회장, 회장을 거쳐 현재는 대한가정학회와 한국여성학회에서 상임이사를 지내고 있을 만

큼 바쁘게 살아온 만 21년이라는 세월을 마무리하는데도 아쉬운 기색을 찾아보기 힘들다. 퇴임과 교수의 열정은 별상관이 없는 모양이다.

질문마다 연구한 분야와 관련시켜 자상하게 대답하는 모습, ‘본교에 들어오고 나서도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의류학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만학을 했었다는 말들이 교육과 연구에 외길을 걸은 열정이 식지 않는 교수라는 인상을 준다.

“책도 많이 읽고 하나하나 이삭줍듯 꾸준히 연구도 해야하고 외국에 공부도 하고 싶다”며 앞으로 계획을 밝히는 이교수는 “이번 1학기까지는 강의를 하지만 그 다음은 후배들에게 맡겨야겠다”고 말하며 면담은 조금은 섭섭한 표정을 지어 보인다.

섭섭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헤어질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 않고 전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치든지 자신의 능력을 격정하지 보다는 희망을 갖고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흐르는 요즘 학생들에게는 봉사정신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지.” 노교수의 연륜이 스민,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격정적인 맘으로 건네는 이야기 같다.

또 교수는 그동안 연구해 온 ‘정착원소장벽의 제작’에 관하여라는 책이 3월초에 발간될 예정이라며 조심스럽게 귀띔해 주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쳤다.

(지)

비길데 없는 안식처였던 동국

보답못한 아쉬움 남아



◇민병천(정치외교학)교수

“강사시절까지 합하면 36년간이나 동대와 인연을 맺어왔는데 막상 떠나야 하니 마음 한구석이 빈 것 같군요”

총장재임을 비롯, 교무처장, 기획실장, 행정대학장, 행정대학원장, 경주캠퍼스 부총장이 명예퇴임하는 지금까지 본교와 함께해온 민병천(정치외교학)교수의 이력이다.

총장직을 역임해 근엄하고 엄숙한 이미지일 것이라 예상과는 달리 잔잔한 웃음과 온화한 표정으로 기자를 맞이하였다.

인터뷰 사정을 적으려 하자, “잠시만 기다려요”란 말을 남긴 뒤 거울앞에서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빙으로 머리를 단정히 하는 원로교수. 이 여유로움과 단아함이 유난히 친근하다.

조끼위의 검은 양복, 화려한 앞치마 세련된 넥타이, 곱게 빗은 머리카락, 주름살 없는 얼굴, 벌써 회갑을 넘기고 퇴임을 한다지만 쇠이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74년부터 20년간 남보다 오랫동안

비길데 없는 유일한 안식처란 표현으로 동국대학교에 대한 '느낌'을 정리했다.

“학교가 나와 잘 맞아서인지 떠나니 것 같지 않지만 본교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서도 채 보답하지 못해 미안한 감이 앞선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동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

자신의 신조가 ‘성실’임을 밝힌 민교수는 “대학시절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단순한 열정에 힘써 생활하지 말고 실력과 능력을 쌓으며 학문적, 공적으로 살것”을 당부하면서 제자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해주었다.

민교수는 명예퇴임을 한 뒤 서경대 총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서경대 총장을 맡았으니 우선 그 일에 충실하고 그 뒤에 여건이 되면 농사도 지어보고 싶다”는 말로 인터뷰를 끝낸 민교수는 그윽한 시선으로 동학을 보듬고 있었다.

(용)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소박한 삶 꿈꿔

일흔이 지나 따뜻한 봄날같은 날씨임에도 정지호(수학교육)교수는 홀로 쓸쓸히 연구실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정교수의 모습에는 퇴임에 즈음한 아쉬움과 연민이 깊숙히 배어 있다.

“요즘은 홀로 연구실에서 붓글씨를 쓰며 지낸다”라고 말문을 연 정교수는 자신의 동반자였고, 삶의 터전이었던 동국을 이야기 한다.

정교수는 54년 수학교육을 임학함으로써 처음으로 본교와 인연을 맺었다. 이렇게 맺어진 인연의 고리는 졸업후 책에 묻혀 살았던 덕분에 교수의 신분으로 동국의 품에 다시 돌아오면서 끊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재임중 가장 생각나는 것은 “사범대학 창설시 교학과장으로 밤을 낮잠을 못자고 이젠 강단을 떠나려는 장한기(연극영화학)교수만큼 본교에 정이 든 사람이 없을까.”

“내 제자들이 문화예술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때가 가장 기쁘다”며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정교수는 TV에서 자주 접할수 있는 유명 문화예인의 스승이다.

정교수는 극작가 유치진씨와 함께 지난 58년 처음 연극학과를 만든 후 지금까지 연극영화학과 교수로서 예대대학장, 문화예술대학원장 등을 역임, 38년간의 재직생활을 마치고 95년도를 끝으로 동학을 떠나게 된다.

“나 학생들에게 정말 무서운 교수였어. 내게 따르던 안 맞은 학생이 없었거든.” 지난 교수시절을 떠올리는 정교수는 그래도 애정고 사명감이 있어 그리울 수 있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정교수는 여행과 글쓰기를 즐겨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못가본 곳도



◇정지호(수학교육)교수

그러나 이러한 행복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동국을 떠나지 못해 아쉽다며 서운해 했다. 정교수는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언인 ‘친구에게 빚진것을 갚아 달라’는 말로 남다른 퇴임소감을 대신한다.

“평생을 품당고 지낸 동국이 그다지 크게 발전하지 못한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책임감을 통감하

고 아울러 동국의 여려구성원에게 많은 빛을 쬐어주고 떠나게되어 무척 송구스럽다”는 말에서 정교수의 동국사랑과 떠나는 아쉬움이 물론 느껴진다.

한편 “고향에서 농사도 짓고 글방도 차려 동네 어린이들에게 교정을 가르치고, 서예지도, 예절교육을 할 생각이며 이 계획은 수년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퇴임후의 소박한 꿈을 말한다. 요즘 들어 부쩍 자주 떠오르는 안중근의사의 글귀 ‘일일 부작이면 일일복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을 신념으로 열심히 생활하겠다는 말로 스스로를 추스리려, 중국 탕왕고사를 들어 “일일신 우일신(日日新 又日新)하는 마음으로 생활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동국의 구성원에게 작별인사를 대신했다.

퇴임후 고향에서 붓글씨를 쓰고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정교수의 인자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훈)

“떠나있어도 동국은 내 집과도 같은 곳...”

제자보다 더 앞선 자신감 넘쳐



◇장한기(연극영화학)교수

“동국이 날 길러주고 보살펴 주었지” 지난 40여년동안 동국의 반역사를 함께하고 이젠 강단을 떠나려는 장한기(연극영화학)교수만큼 본교에 정이 든 사람이 없을까.

“내 제자들이 문화예술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때가 가장 기쁘다”며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정교수는 TV에서 자주 접할수 있는 유명 문화예인의 스승이다.

정교수는 극작가 유치진씨와 함께 지난 58년 처음 연극학과를 만든 후 지금까지 연극영화학과 교수로서 예대대학장, 문화예술대학원장 등을 역임, 38년간의 재직생활을 마치고 95년도를 끝으로 동학을 떠나게 된다.

“나 학생들에게 정말 무서운 교수였어. 내게 따르던 안 맞은 학생이 없었거든.” 지난 교수시절을 떠올리는 정교수는 그래도 애정고 사명감이 있어 그리울 수 있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정교수는 여행과 글쓰기를 즐겨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못가본 곳도

다지고 수필, 소설등의 창작활동에도 전념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작품구상이 떠올랐다가도 학생들에게 강의도중 얘기하고 나면 김이 빠져 글이 안써진다”고 퇴임에 이른 아쉬움을 애써 감추지만 노교수의 눈빛마저 그 아쉬움을 감추진 못했다.

동국중흥의 발전전략에 대해 장교수는 기존의 문제로 발전계획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재학생, 졸업생들이 단합의 전통을 살려 탄탄한 유대에서 장기적 계획을 추진한다면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를 떠나더라도 학교발전의 모습을 지켜보며 후원하는 마음을 아끼지 않겠다”고 퇴임소감을 밝힌 장교수는 “오늘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보람있게 살아가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집에 있으면 게을러져서 안된다며 오프스텔에서 하루종일 책과 씨름하고 있는 장교수를 만나고 나 오다보니 책상위에 놓여져 있는 집필중인 원고지 통치와 인경이 눈에 띄었다. 이제 강단에서 장교수의 열정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글을 통해서나마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동국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규)

“할만 하니깐 그만 두라네”

지속적인 연구활동으로 아쉬움 떨칠터



◇하덕모(식품공학)교수

하덕모(식품공학)교수와 인터뷰를 위해 교수연구실문을 다섯번이나 두드려야 했다.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도 잠시의 틈도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하교수의 일과때문이었다.

그렇게 어렵게 만난 하교수는 며칠전 호주에서 귀국해 여독도 채 풀지 못했을 텐데도 긴장한 얼굴빛에 밝은 표정이었다.

하교수는 자리를 권하고 앉으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나”라며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동안 교수로서 강의나 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공과대학장, 산업기술대학원장, 교무처장을 비롯한 여러 학교행정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못다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었을 뿐이다.

지난 30여년간 식품공학과와 함께 호흡해온 하교수는 어제를 돌아보며 동국의 발전사와 발전을 얘기한다. “사범대가 생기고, 동국관이 들어서고, 실험실도 많이 개선되고...”

그렇게 학교의 변화를 지켜봤고 또 그속에서 더불어 변화왔던 학생들의 모습을 보아왔던 하교수는 “학생들이 강한 의지와 높은 이상을 기졌으면 좋겠어. 요즘 학생들은 의지가 약한 것 같아. 대법하고 응감해야지”라며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지금도 전국규모의 관련학회로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산업미생물학회, 한국농화학회의 활동으로 바쁜 하교수는 퇴임을 정중한 사람

밀어내는 것으로 밖에 느끼지 않는 듯 하다. “할만 하니깐 그만 두라고 해”.

서운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실험실에 자신의 손때가 묻지 않은 실험기구가 없다는 하교수의 말을 통해서도 못내 아쉬워하는 심정을 읽을 수 있었다.

앞으로 하교수는 퇴임의 아쉬움을 명예교수로서 하게 될 강의와 뜻다른 연구에 대한 논문으로 떨치려 한다.

“내가 할일이 이것밖에 더 있나. 이제 직업인데”하며 끝까지 학문에 몰입을 짓을 다짐하는 그의 모습은 퇴임이 단지 시간의 흐름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은)

“내자식들 두고 내가 어딜가”

제자와 함께 퇴임작품전 준비

“교수님 방학인데 어떤 일입니까?” 지나가던 한 직원이 묻자 “음... 방학 미술학과 들어 갈까봐 나왔네...”라고 화답하시는 나부영(미술학)교수 모습에서 인격의 깊이를 담은 은은함을 풍기시는 그 향기를 함께 교정을 거닐며 느낄 수 있었다.

나교수의 연구실에 들어섰을때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백현우씨에 경주캠퍼스 관련 행사때마다 답답한 리본을 빼지않고 모아 장식된것이었다. 16년의 경주캠퍼스 역사를 한눈에 본 듯 하고 나교수의 동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은 짐작하고도 남았다.

경주캠퍼스 미술학과 설립부터 있었던 나교수는 “내 딸 아들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가?”하며 퇴임에 대한 섭섭함을 덧붙인다. 나교수는 퇴임후에도 작품활동을 하면서 강의 할 계획이다.

요즘을 내달 9일 ‘퇴임작품전’ 준비로 한창 작업에 열중이며 나교수 자신의 작품과 제자의 작품으로 구성된 퇴임전을 “사시간에 함께하는 작품전은 흔치 않은 일이다”하며 은근히 자랑한다.

취재도중 군복무중인 제자의 전황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글을 통해서나마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동국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교수는 딸 아들들에게 “독자적인 개성발휘로 잠시도 작품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작품세계를 구축”



◇나부영(미술학)교수

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동양화를 전공하는 나교수는 거북이 같은 특이한 동물을 소재로 한다. 나교수가 소재로 한 거북이 작품은 한·독미술협회전에 출품한 적도 있어 격찬을 받았으며 지역화단에서 또한 그의 공헌은 지대하다.

한 편생 “원리 원칙대로 살아야 하며 적당히 라는 단어가 제일 싫다”라는 신조속에 예술가로서의 끈은리라 세심함을 보인다.

어느때가 교내 노래자랑때 멋들어진 목소리로 학생들과 어울렸던 모습. 본교 건물마다 걸려진 교수의 작품속에 여전히 ‘온방골 학생들의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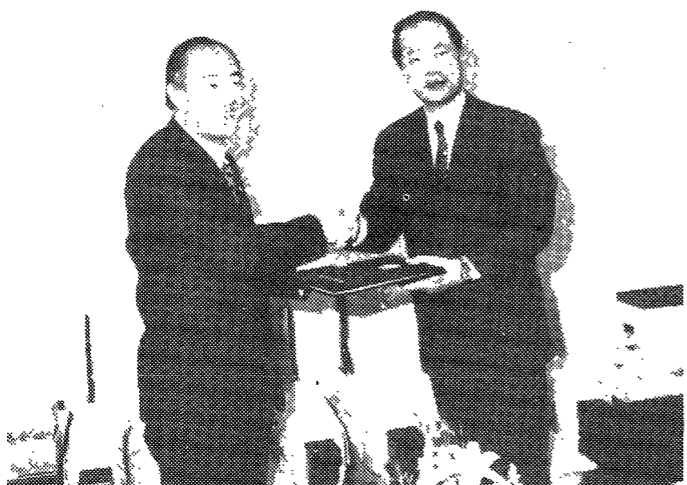
인터뷰에 응해주신 퇴임교수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편진자)

미시간 주립대학 자매협정 체결

영어권대학과 교환학생제 처음 실시 이공계열 활발한 교류 가능 할 듯



◇ 지난 22일 총장실에서 미국 미시간 주립대와 자매협정 조인식이 있었다.

지난 22일 본교 총장실에서 미시간 주립대학(MSU)과 자매협정 조인식이 있었다.

양대학은 호혜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상호우호 증진하여 교육 및 학술교류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자매협정을 맺었다.

교육 및 연구활동에 관한 문헌, 자료 및 정보교환, 교수·학생 교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개최를 내용으로 하는 이번 자매협정은 영어권 대학과는 처음으로 교환학생제를 실시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송석구 총장은 "미국 중서부 최고의 대학인 MSU와 자매협정을 맺

게되어 영광이다"고 협정소감을 밝히며, "본교 학생들의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문적 경험을 넓히고, 또한 동국 특유의 불교 문화와 동양사상을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MSU측 임길진(세계속의 아시아 석좌교수)교수는 "총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학술교류제 담당자의 노력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자매협정이 추진되었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학생 및 학술교류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대학에 많은 발전이 있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자매협정은 무엇보다 실질

적인 학생교류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술교류부(부장=이원부)는 "토폴로지 5백20점 이상(일반 교환학생제는 5백50점 이상) 이번 제한없이 학교측에서 적극지원할 것이며 장학금 혜택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자매협정을 맺어온 학교가 인문사회 중심으로 교류가 진행되었는데 MSU와는 공과계열과 이공계열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인정 문제에 있어서는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이 된다.

또한 학생들의 생활은 MSU측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며 유학경비는 학비와 기숙사비가 학기당 각각 약 4천불, 3천불 정도이다. 미시간주립대는 1855년 창립 이후 공과교육이념 실현을 위해 1백10개교 대학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4만명의 학생과 2천8백여명의 교수 중 방문교수가 5백여명, 외국학생이 2천5백명에 이른다.

MSU측 교수는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나라에 대한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어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권할 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환학생 모집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3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96 새내기 새로배움터

학부제 실시 따른 학생회 중요성·신교육제도 교양 중점

총학생회

'96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가 총학생회(회장=유병문·부교4)주최로 오는 29일부터 3월2일까지 속리산보림원, 화양유스호스텔, 심신수련원 등 세곳에서 열린다.

'내가 택한 동국, 내가 만드는 동국'을 기조로 새내기 96세터는 대학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들에게 개교90주년을 맞이하는 '동국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 '자기 삶의 주인' '대학문화의 주인'으로 서는 기반을 다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동아리연합회(회장=최동현·국교3 이하 동연)는 '96년'이라는 주제로 동아리활동공감과 동아리전시회를 계획중인데, 행사는 새터기간중 세지역을 돌아가며 진행된다.

그의 중앙공원으로 총학생회문화국과 아리랑·탈·동국문화회가 함께 '역사의 소용돌이를 개척할 공동체'를 건설하는 '나라는 주제'로 집체극을 준비한다.

기타행사는 세지역으로 분리된 단과대별로 진행되며 지역배경과 인원은 다음과 같다.

△1지역 보림원=사범대(2백50명), 문과대(2백22명), 경상대(2백28명), 법대(64명) 총 7백64명

△2지역 심신원=공과대(7백19명), 이과대(1백80명) 총 8백99명

△3지역 유스호스텔=사과대(1백28명), 야간강과(6백55명), 생자대(1백20명), 예술대(90명) 총 1천3명

한편 불교대 새터는 24일부터 27

일까지 속리산 법주사에서 치뤄진다.

'96학생회의 첫사업인 이번 새터는 학부제가 처음 실시되는 해인만큼 새내기들에게 '학생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부분이 주목되고 있다.

학 교

96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하 O-T)이 내일(27일)장충체육관에서 학교측 주최로 진행된다.

이날 O-T는 개교 90주년을 맞이하여 동국의 발전상 제시, 신교육제도에 따른 학사행정 안내, 동국인으로서의 자부심 및 일체감 조성, 21세기를 준비하는 젊은이로서의 자질 함양 등에 중점을 맞춰 진행된다.

다. 한편 이번 O-T에는 신입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과의 정은 계정은 이번 O-T에 대해 "학부제 등 신교육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96학번 신입생에게는 신교육제도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후에는 각 단과대별로 수강신청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총장특강 △순정사상강화, 불교합창단 공연 △21세기를 준비하는 젊은이 특강 △교과 및 융합가 연승 △신교육 제도 안내 △교과 및 융합가 제창.

학관 새단장...효율적 공간배치

5층 공간문제 곧 해결될 듯

지난 71년 준공된 학생회관이 본교의 대학평가가 실시되는 96년을 맞아 깨끗히 단장됐다.

지난해 12월말 시작된 학생회관 내부공사가 그간 지체돼는 난방, 방음, 조명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난 주 완료되어 이번 주중에는 학관내에 분산된 각종도서관의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간재배치도 과거 2·3층에 분산 배치됐던 총학생회, 동아리연합

회의 중앙기구를 총학생회, 총대 의위원회와 함께 1층에 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각층은 동아리의 성격에 바탕으로 한 학술·예창·체고등 각 분야별로 재배치됐고 4층과 지하1층은 큰 변동이 없다. 현재 5층만 연구분과와 설치될 예정인데 총학생회와 학교측이 협의중인데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예술대 "조소전공 옮긴다"

학교측과 마찰 예상

동국학술문화센터로의 이전을 앞두고 예술대 총학생회(학생회장=김재영·연영4)는 학교측의 '조소전공 불이전' 방침과 달리 조소전공도 같이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예술대 학생회측은 지난 1월9일 열린 비상학생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확실히 하는 한편 기획조정실에서 제시한 공간배치 회의 자료를 거부하고 학생회측에서 자체적으로 구상한 공간배치도에 따라 이전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예술대는 이번 달 14일부터 조소전공을 선두로 이전을 시작하게 된다.

예술대 총학생회는 또한 방중에도 대자보 투쟁을 전개하고 지난 14일에는 본관에서 약 40여명의 예술대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습공간 마련과 예술대 단원간을 요구 시위를 하는 등의 지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

9년간 계속됐던 예술대 단일 건물 투쟁의 정점이 될 이번 조소전

공의 학술문화센터 이전 문제는 지난 10월부터 불거져 나와 지금까지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서본실 방지시스템

도서관(관장=정병조·국민윤리학) 일반자료실에 분실방지시스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도서 대출시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도서에 부착된 마그네틱이 제거되지 않아 자판으로 경보, 경광, 출구 잠금장치가 작동하게 되어있는 이 시스템은 일주일간의 시험기간을 거치고 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고의 분실방지시스템 공사는 교수회관에서 서고 투쟁을 증폭할 계획이어서 서고의 재배치와 아울러 공사도 함께 올해안으로 방학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희·전·무·대

동거(?)동락

○...공중전화부스에서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멋있게 통화를 하는 남자.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그런데 영화처럼 멋있기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죠. 다 태워진 담배는 영화의 주인공에게 버림받은 채 초라하게 공중전화기 옆에 쫓그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 똑같은 처지의 동료들이 자꾸 모여들어 서로의 외로움을 나눈다는게 안쓰라릴까요?

담배=약(?)

○...요즘 후련한 약국은 너무나 장사가 잘 되는데,

모든 동국인은 알다시피 후문에서 담배를 파는 곳은 약국 하나뿐.

건강에 나쁜 담배를 병을 치료하는 약을 파는 약국에서 판매한다.

약국을 나오면 한 학우 왈 "담배도 중요한 치료제(?)"라며 떨리는 손을 잠재우며 담배를 파우는데,

일석이조

○...어당숙담? 아당숙담?

어당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북한 김정일 노동당 비서의 옛동거녀탈출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여당에 호재다."

※어당 숙담: 일석이조(一石二鳥)- 돌맹이 하나로 두마리의 새를 잡는다.

어는 아당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어당이 과거 87년 대선을 독전에 두고 김련희 사건을 선거에 이용했듯 구비고비마다 외교 및 남북문제를 정치에 이용해온 구습은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어당 숙담: 일석이조(一石二鳥)- 돌맹이 하나 쥐어졌더니 잡으려는 새는 안잡고 영동한(興) 새만 잡는다.

파해기

○...신기해의 속칭 선거대책본부장이라 일컬어지는 YS, 불거지는 독도문제에 다소 흥분(?)된 눈치.

4·11총선을 앞두고 맷소함을 수시로 드나들 건수가 생긴것.

항간에서는 이번 독도문제가 총선에 미칠 영향을 짐쳐보지만 술술 꼬리를 내리는 째(JAP)들을 보면 예상은 짐쳐 짐쳐할 듯.

강 건너 지켜보던 야(野)씨네 왈 "꼬인다. 꼬여~"

출판부 불교전서 12책 완간

삼백여종 불교문헌 총망라

출판부(부장=백우석)는 한국불교전서 12책을 지난 1월25일 간행했다.

출판부는 지난 89년 한국불교전서 10권을 펴낸데 이어, 6년만에 보유권 2권을 추가함으로써 현존하는 불교문헌을 총망라했다.

한국불교전서 12책은 무려 26년만에 이루어진 '학술불사'로 신라 원축(613~696)의 '반야심경전'부터 구한말 보경(1861~1930)의 '염불요론'에 이르기까지 1백80여명이 남긴 3백여종의 불교문헌을 담고 있다.

'불교전서'간행은 고려 대각국사 의천의 속장경이후 우리나라 최대 학술전찬사업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불교학 뿐만 아니라 역사, 철학, 문화 등 한국학 전반에서 획기적 발전의 계기라는 의미를 지닌다. 특

히 자국에서 찬술된 불교문헌을 한 곳에 모아 편찬하기는 이웃 일본에 있어 두번째다.

일본은 1912년부터 1922년까지 정부지원으로 1백20권에 달하는 '일본불교전서'를 간행, 전세계 불교국가들 놀라게 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차원에서 12억원을 투입해 완간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에 발간된 제12권 보유권에는 책에 수록하지 못한 자료들을 모아 시대별로 분류했으며, 수집된 구한말의 자료를 정리했다.

특히 신라 원축의 '조탑공덕경서(造塔功德經序)' 등 34권의 문헌중에는 그동안 책명과 저자명조차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희귀자료가 여러편 들어있다.

또 고려 대각국사 의천의 법손

(法孫) 학식이 쓴 '일종문류집해(元宗文類集解)'는 균여이후의 유일한 화엄학 저술 주석서로 화엄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조구의 '자비도량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 역시 천태종 승려의 유일한 작품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그의 절의인 '동계집(東溪集)', 전령의 '해봉집(海鵬集)' 등도 모두 희귀본으로 밝혀졌다.

또한 본 전서는 구한말 송광사 도총상을 지낸 보경이 필사로 남긴 17종의 저술중 '진각시경(眞覺詩鏡)' 등 6종을 제외한 11종의 문헌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한편 현명편찬찬실장은 "전 12권의 완간을 계기로 '총망라불교전서본'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자보 용지

4절지만 배포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제작해 배포하던 대자보 용지가 4절지만으로 한정 배포되게 된다.

지금까지의 전지, 2절지의 과다사용에 대한 낭비와 계산관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 시행하게 될 이번 계획에 학생회의 장문계장은 "이러한 소형대자보 용지 사용은 선진국형 계산관"이라며 "시범적으로 다량만 앞 물물교환전용과 분실을 전용 계산관을 4절지 전용 계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올해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고시장학생 합격자 발표

계산고시학과(사장은 이순용·법학)는 96학년도 1학기 고시장학생 선발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합격자는 고광우(정의 4)와 59명으로 이들 합격자에게는 수업료 전액 또는 반액의 혜택이 각각 30명씩 돌아가게 된다.

한편 이들에 대한 입실사정이 지난 22일 실시됐다.



세척과 단백질제거를 동시에 해결하는 SPC-그 편안함과 부드러움이 400만병 돌파라는 신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렌즈 관리를 편리하게! 눈은 편안하게!-SPC! 렌즈착용자의 친구로 늘 가까이 있겠습니다.

시은전서1 SPC를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깜찍한 콘택트렌즈 보관함을 드립니다!
■ 행사기간: '96. 2. 26(월)~3. 25(월)

시은전서2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SPC를 구입하신 후, SPC 포장지의 상표부분(우측 그림 점진)을 렌즈업서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 경품내역
 - 영문상(50명) MOOK 피싱상품 교환권(60,000원) (우측 그림) (당첨률 100%)
 - 마스킹(100명) 배너용 기판 (우측 그림) (당첨률 100%)
 - 가방상(150명) '96 그래픽 노마나 CD (우측 그림) (당첨률 100%)
- 용모기간: '96. 3. 6(수)~3. 25(월) (3. 25 우체국 소인 유요)
- 보내실곳: 156-757 서울특별시 남서울우체국 사서함 96호 중외제약 광고팀(전화: 840-6691~4)
- 발 표: 4. 3(수) 스포츠신문



렌즈세척과 단백질제거를 동시에-
SPC 에스피씨 액
■ 수입원제품 ■ 경정조리제 ■ ₩ 5,500 (2개입/분)

중외제약



“꿈은 크게... 노력도 그만큼”

아버지와 딸이 한평생의 연인처럼 다정하게 걸어왔다. 그 딸이 올해 수석졸업한 경상대 경영학과 박혜정씨. 평균학점 4.37점, 총 141학점을 이수했다. “제가 아버지께 같이 나오자고 했어요. 아버지가 이 인터뷰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학점면에서 좀 잘한 것 뿐인데. 부끄럽기 두하구. 물론 기쁘요. 기쁘요. 약간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수석졸업 소감을 간단히 말한 후 박혜정씨 활짝 웃었다. 매일 12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속에 학교 커리큘럼을 성실히 이행, 영어공부도 학교교과를 이용했다고 한다. “흔히 학교 커리큘럼이 불충분하지만 열심히 하고 나면 도움되고 남는 것은 꼭 있더라고요” 지난 4년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3학년때 했던

수학여행이었다고. “한라산을 올랐는데 신발도 부실한데다 자갈길이라 너무나 힘들었어요. 당장 내려가고 싶었지만 교수님과 학우들의 격려로 겨우 오를 수 있었죠. 혼자선 도저히 못올랐을 거예요. 거기서 혼자보단 우리끼리 힘을 줄 수 있는 힘을 알았죠” 한편 이러한 소중한 기억 뒤로 아쉬움도 남는 박혜정씨. “학과공부엔 충실했고 뿌듯함도 느꼈지만 좀더 많은 사람들을 사귀지 못한 것과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워요” 현재 박혜정씨는 LG정보통신에 취직이 돼 연수까지 마친 상태이다. 연수기간중 밖에 머리를 대가만 하면 잔다고 동료들이 “대면자”란 별명을 붙여줬다. 직장에서 경력을 쌓은 후 대학원진학 또는 유학을 고려중이며 배운 것을 실전에 접목시켜보고 싶다고 말하는 그녀의 입에는 다부졌다.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허황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큰 꿈을 가지면 그만큼 노력할거 아니에요. 사람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끝까지야한다는 문구도 기억에 남아요. 후배 여러분도 꿈을 갖고 열심히 하면 무언가 꼭 얻을거예요” 인터뷰 동안 조용히 자리를 비켜준 신 아버지는 인터뷰가 끝나자 다시 다정한 연인처럼 딸과 발걸음을 옮겼다. (진)

수석 졸업자

인터뷰



자유·낭만의 대학가를 그리워하며...

맞았다”며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재작년 교수님의 권유로 일본에서 교환 유학생 생활을 한 김양은 “일본사람들의 서양풍경사상이나 소극적인 습관과 기질때문에 친구사귀때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의 공부나 음식은 문제되지 않았다”고 한다. 유학을 다녀온 후 일본의 교육과 우리나라 교육의 차이점을 발견했다면 일본의 교육은 충분히 세분화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1-2학년 문법위주 3-4학년 문학위주로 다분히 취업식 교육이다”며 우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현재 일본의 독도방안에 대해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양은 “매년 그렇듯 일본은 자신들의 문제로 인한 국민의 시선을 국외로 전행시키려는 것이기에 언젠갈 가기도 없다”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삼성정밀화학의 어학부에서 전공을 살펴 첫발을 내딛은 김양은 근대문학에 관심이 많아 “대학원에 진학하여 계속해서 일본문학을 공부하고 싶고 직장에서도 경력을 쌓아 프리랜서나 번역가로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했다. (용)

서울 경성대 경영학과 박혜정

경주 인문대 일어일본과 소속 김화숙

영학의 패러독스

—저예산 독립영화 ‘내일로 흐르는 강’

가족사로 투영된 우리 사회의 근현대사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교수·영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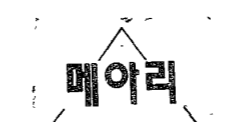


90년도에 (자유부인 90)이라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 영화를 만든 박재형감독이 5년만에 야심작으로 만든 (내일로 흐르는 강)은 놀랄만한 저예산 독립영화이다. 이 영화는 두 가지 점에서 특이한 영화이다. 첫째는, 저예산 독립영화란 점으로서 무명의 신인배우, 신인감독의 저예산 작품이란 점이다. 둘째는 최초의 게이 영화라는 점이다. 그동안 게이를 영화에 등장시킨 영화는 간간이 있었다. 그러나 이 영화야말로 가장 본격적인 게이 소재영화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 영화는 우리의 근대사를 잘 정리해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나오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1부에서는 ‘아버지’와 2부에서는 ‘가족’은 서로 단절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연결된다. 1부와 2부 둘다 가족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1부에서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개인사와 공적인 역사를 서술한다. 커다란 갈등은 빈부와 계급의 갈등이며, 그 갈등은 이념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그 전경이 바로 6.25이며 그 이후 이 집안은 아버지의 독재로 일관된다. 소위 ‘개발독재’라는 그 형태는 그러나 영화속에서는 완고한 유교적 질서로 대변된다. 박재형의 죽음과 아버

지의 죽음을 동일시한 것은 옳으나 아버지로 표상되는 권위와 박재형 정치의 본질이 같은 것인지는 의문이다. 물론 하나의 비유이니 크게 문제삼을 건 없다. 아버지의 불건성은 철의 자식을 박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의 유교적 근본주의는 서구적인 물질주의나 ‘상징들의 반란(?)을 막아내지 못한다. 결국 1부의 중요한 인물인 명수형의 반항, 월남파병, 전사에 이르는 에피소드와 명화부나의 불륜과 가족을 설명하는 에피소드들이 이 완고한 유교적 가치가 결국 풀락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2부에서 중요한 인물은 막내인 정민이며, 결국 정민이 게이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정민은 영화감독을 지망하는 광고회사 감독인데 우연히 가게 된 게이바에서 중년의 한 친구를 사귀게 된다. 관객은 이후의 장면들을 결코 짐작할 수 없도록 바라보게 된다. 왜냐하면 비교적 사실적으로 그려진 게이들의 생활을 통해 관객은 동화된다기 보

는 극도의 역겨움을 느껴게되기 때문이다. 일반관객들이 갖고있는 게이에 대한 관심은 오로지 반대적인 성생활에 맞춰져있다. 어떻게 설득하는지 간에 관객들은 일단 게이가 나오기만 하면 어떤 선입관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조금 심한 표현을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관객들은 게이를 ‘변태성욕자’들로 부르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감독이 제시하는 게이란 단지 반대적인 성생활의 의미를 넘어선 것이다. 게이란 인간의 소의를 설명하는 하나의 우화적인 소재일 수 있다. 게이란 그 사회와 시대가 처한 어떤 상황의 의미를 질문하게 한다. 서구의 게이와 우리의 게이는 그런 점에서 다르며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존재한다. 이 영화속에 제시된 게이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질서가 억압해온 가족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읽힌다. 그것이 대안으로서가 승화될수는 없을지라도 반항과 도전의 의미로는 충분하다.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의 현대인들은 정보과부하 현상으로 정보자체가 방해하고 상호모순된 정보가 중첩되어 각 개인들은 그 정보를 소화하지 못하고 혼란과 판단미비에 빠진다. 하지만 정보를 떠나서는 이제 이 시대를 살아나갈 수 없다. ▲15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텔레비전, 일간지 모두 총선으로 떠들썩하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눈앞에 펼쳐지지 않은 곳의 선거 분위기를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섭취할 수 밖에 없다. 깨끗한 우유 박찬종씨가 신한민주당에 입당 개혁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사노맹 재건사건이나 노래때 꽃다지 대표의 구속 등의 공안사건이 요즘 부쩍 늘었다. 유명 연예인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뉴스의 신뢰감을 등에 업은 영커출신들의 선거출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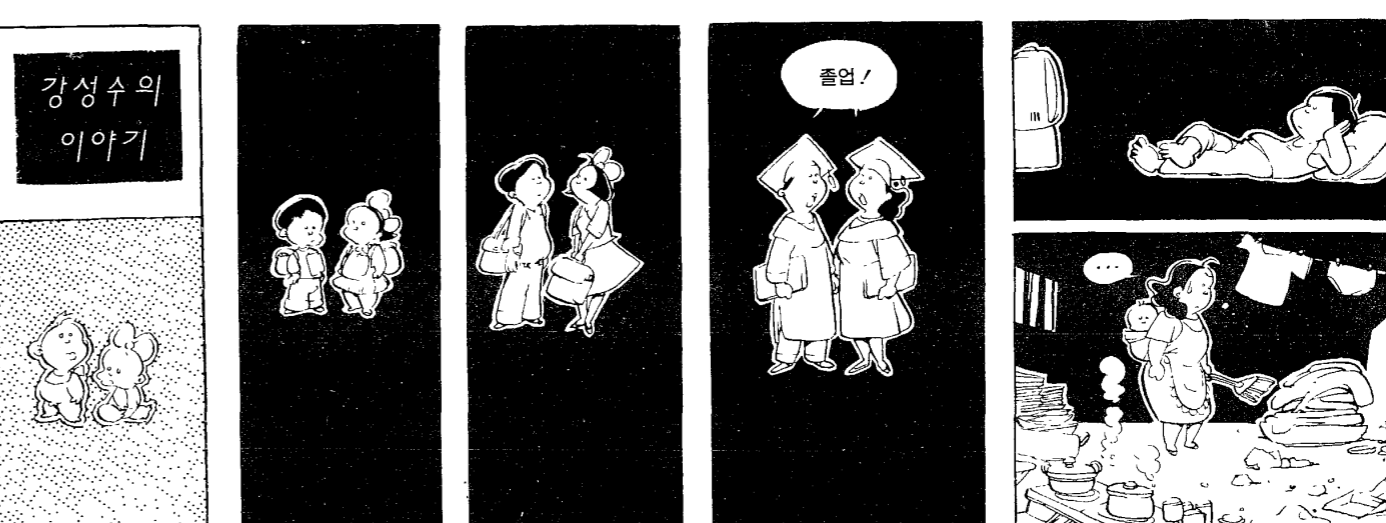
미디어와 총선

어느때 보다 빈번하다. 매스미디어의 시대에 이미지 정치가 전기를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이미지 전쟁에 정책은 이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 투표표지는 이제 정책이 약속이 아닌 허울좋은 책임을 안다. 빛깔좋은 정책에 아무리 자금을 받더라도 실적이 없는 정책에 대중들은 상실감과 좌

절감 이래 정치에 냉소하고 무관심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을 이용한 정치인들은 이러한 무관심과 냉소로 굳어진 대중들을 향해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보·문화화를 더욱더 조작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리고 성공가능성을 높여 점진한다. ▲노태우 비자금 파동을 지켜온 이방의 서민들은 소주잔을 맞대며 한탄밖에 할 수 없고 서태지의 정치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다는 가사는 공론에 무릎을 꿇었다. 독재정권에 기생한 방송사, 일간지들은 이제 5-6공인사를 살인자로 물기에 바쁘다. 매스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자발적 민중들의 움직임은 언제 올까, 우리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희망을 갖자. 어찌됐든 역사는 발전하는 법이니까. (민)

문학단신

◇광화문과 햄버거와 파파랏... 지난 94년 귀국하기전까지 10년 넘게 이국에서 생활한 작가 송삼숙씨의 체험이 배어있는 신작 소설집이다. 한국인 이민들이 겪는 애환과 고초를 그린 작품. 창작과 비평사 ◇만화 중독자 전시회...만화인력 양성을 위한 일련 과정의 전문 프로그램을 가진 젊은이들이 현대 사회와 삶을 만화로 표현한 전시회. 한겨레신문사 문화센터 주최로 지난 2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응전갤러리에서 열린다. 카툰 10여점, 이야기 만화 30여점, 설치 만화 3점, 만화 조각 1점, 단편 애니메이션 4점등 50여점이 전시된다. 오는 27일까지 응전 갤러리.



21세기 주역을 위한... 외국어 교육 1번지! YBM 시사영어사 학원. 구: 현대사시어학원. 영어·일어·중국어. TOEIC, TOEFL, TOEFL L.C., TOEIC R.C., TOEIC 실전테스트, 아카데미 TOEFL, TOEFL L.C., AFKN 청취, TIME, VOCABULARY, 영자문연구기초영자, 영어실력기초, Side By Side 회화, Interchange 회화, 퍼리언 영어코스, 영어 순화, 일본어 문법·독해, 일본어 일어회화, 중국어 문법·독해, 주말 특별 과정.

SINCE 1961. 35년 전통의 시사영어학원은 최고만을 추구합니다. TOEIC 900, TOEFL, LISTENING, TIME, AFKN, VOCAB, WRITING, GRAMMAR, READING, 영어순화, 시네파영어, 주말특별반, 미국인화, CELP, 한인회화, S.B.S, TOEFL 600, GMAT, GRE, 대학원종합반, 동역대학원반, 일본어회화, 일본어문법/독해, 일본어능력시험반, 일본어동역대학원반. 새벽·오전·주5일, 저녁·주3일 90분강의. 시세외의 도우미, 시사영어학원, 종로2가 종로서적 뒤 TEL: 734-2442.

프랑스어. 프랑스어와 프랑스문화의 만남은 알리안스프랑세즈에서. alliance francaise 96.3.4월 학기개강 3.4월. BEF I II, MA I II, NSF I II III, AP, ARC, ESP I II, 자유회화반, 시사 뉴스반, 동시통역반, 독해작문반, 상업 무역 불어 및 비서직 학위준비반, 비디오 시청각반 DELF-DALF 준비반. '96 일리안스 주관 시험: DELF-DALF 시험, 프랑스 정부 교육성 주관하의 프랑스어 지식 및 구사 능력 학위증 발급, 상업 무역 불어 및 비서직 학위증, 프랑스 상공 회의소 주관 학위증 수여. 유학상담: études en France, voyages, stages de langue. 이제는 알리안스에서 직접하세요. '96 봄학기 언어연수. Seoul-centre ☎ 755-4972, 5702 (중구), nam-seoul ☎ 555-1125, 1126 (강남), taegu ☎ (053)255-4630 (대구). 프랑스어와 프랑스문화의 國際學校 (세계 100여개국에 1000여개의 알리안스). Alliance Francaise AMBASSADE DE FRANCE ET DE FRANÇAIS.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교" LTRC. 영어를 왜 LTRC에서 배워야하는가? 여기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고의 영어회화 프로그램, ●25년 동안의 영어교육 경험, ●시청과 광화문에서 3분 이내, ●읽기, 쓰기, 발음, 문법 등의 무료 특별 프로그램. LTRC is your key to learning English. 제146기 수강생 모집. 개강일: 1996년 3월 4일, 반편성: Level Test에 따라 8-13명으로 구성, 수강시간: 1월 75분 주 5일 수업(8주), 강사진: Native Speaker 직강, 등록: 12월 18일부터 선착순, 접수전화: 737-4641, 팩시밀리: 734-6036. 재단법인 언어교육부설 언어교육학원 LTRC 코리아호빌타워.

軍 PC 행정영어모집. 육군본부위촉. 고졸이상 17~26세, O.A 행정병 주특기부여, 영장 본원수령단독입영, 군신검 4급이상자, 1월~12월 매월 입대. <접수중> ※유시학원주의. 관인컴퓨터학원, 인성컴퓨터학원, 등록 735-2323-9716, 종로가 지열은행 본점 옆.